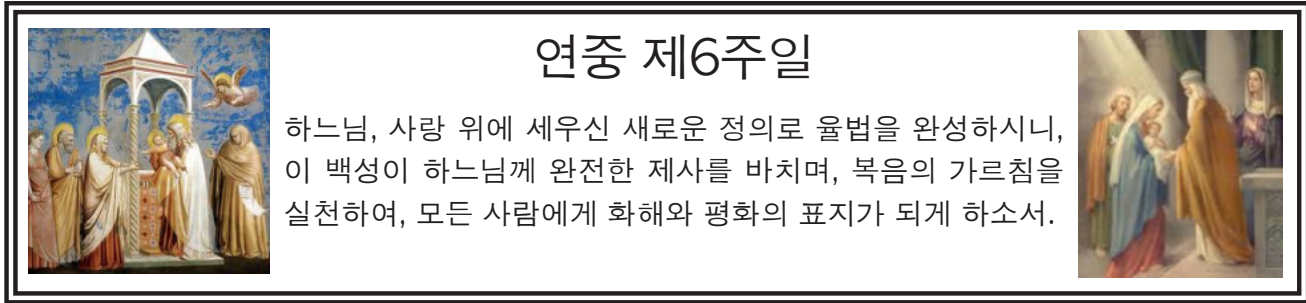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6주일

하느님, 사랑 위에 세우신 새로운 정의로 율법을 완성하시니, 이 백성이 하느님께 완전한 제사를 바치며,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모든 사람에게 화해와 평화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교회와 사회가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견진교리 일정

-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교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2(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성 로렌스 성당(KU)

평협 회의

- 일시 : 2/16(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구역 회의

- 일시 : 2/23(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재의 수요일(3/5)' 이 다가옵니다. 성지가지 회수합니다.
- 2/23(일) 중심미사에, 홀리트리니티 본당에 파견 나와 계시는 안 에드워드 신부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미사 봉헌을 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8	217	170/175	446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차호섭(요 셉)
	정준구(파비아노)	문석찬(요 셉)
차주	안광민(야 고 보)	이우영(가브리엘)
	정병훈(보니파시오)	고영방(스테파노)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 네 스)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김정옥, 박정자, 최은미
차주	김명은, 김화년, 박옥희, 안현숙, 전현교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아 네 스), 박희영(카타리나)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2/9	75명	301불	1,810불
김화년, 김정환, 이영민, 차호섭, 김정원, 안동현, 홍순익, 정준구, 고영방, 이현주			

연중 제6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2월 16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법조문의 준수와는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기꺼이 실천하는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합니다.

성화해설

귀한 예물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 (마태 5,23-24)

화해와 용서는 작은 죽음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 화해와 용서를 감행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은 그들을 귀한 예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팔수도회

제 1 독 서 : 집회 15,15-20 < 주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



- ◎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행복 하 도 - 다
-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생활 깨끗한 이 행복하도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들, 행복하도다. ◎
 - 주님께서 계명을 선포하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제 걸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
 - 은혜를 내리시와 당신 종을 살리시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 법의 모함을 저는 보리이다. ◎
 - 주님 계명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저는 그대로 끝까지 따르리이다.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의 법을 지키게 하소서, 이 마음 다하여 지키리이다. ◎

제 2 독 서 : 1코린 2,6-10 <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 마태 5,17-37 <또는 5,20-22나.27-28.33-34나.37>
<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쉐 마

“계명은 사랑이다”



자동차가 20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을 갖기도 하지만 이 자동차로 인해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 사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자동차 사고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동차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따르고,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주의의 대부분은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아예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하다가도, 가끔씩 어기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아무도 보질 않는다거나,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운전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자칫 커다란 사고를 당할 위험을 겪곤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 대부분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운전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준법 운전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도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법운전을 잘 하는 사람만 있어도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둘째는 안전운전입니다. 운전을 잘 하는 분들은 자신의 차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의 차량과 뒤에 오는 차량까지 살펴봅니다. 앞에 큰 화물차가 있으면 추월을 하거나, 좀 떨어져서 운전을 합니다. 운전습관이 거친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면 먼저 가도록 피해 줍니다. 셋째는 양보운전입니다. 고장 난 차가 있으면 내려서 도와 주는 운전입니다. 짐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잠시 세워 서 모셔다 드리는 운전입니다. 내가 하는 운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양보운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하거나 악을 하거나, 그 행동은 바로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잘못해서 교도소에 간 사람들도 이야길 들어보면 다 과거에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선택으로 지금 그런 차가운 감옥에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은 하나하나 모두 지켜야 한다. 아니 우리들은 이런 법의 근본정신까지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법을 몰라서, 법이 잘못되어서 잘못되는 일보다는 법을 잘 알지만,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생기고, 많은 잘못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쩌면 이런 법을 뛰어넘어야 하고, 이런 법보다도 더 큰 가치와 이념을 삶으로써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길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되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느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숙한 우리는 법을 뛰어넘는 가치와 그 법을 받쳐주는 사랑의 힘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화답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오늘 제 1독서는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잘 말

마중물

“우리는 왜 빠져드는가?”

2007년 1월 12일 아침. 정신없이 분주한 출근길, 더군다나 장소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혼잡한 랑팡 지하철역. 청바지에 허름한 티셔츠 그리고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낸 후 그 케이스에 1달러지폐와 동전 몇 개를 넣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총 45분 동안 이루어졌고, 총 6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그 남자가 연주하는 앞을 지난 사람은 수천 명,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7명만이 그의 바이올린케이스에 돈을 넣은 사람이었고, 1분 이상 멈춰서 연주를 들은 사람은 단 7명, 그 중 한 명은 3살짜리 꼬마였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연주를 열심히 듣고 감동받은 한 명은 랑팡 지하철역 구두닦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은 바로 세계적

인 바이올리니스타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 머큐리 음악상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음악상,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기악독주자, 또 에버리 피셔상을 수상한 음악천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하철역에서 들고 연주한 바이올린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1713년 제작한 350만 달러, 한화 추정 48억 원짜리였습니다. 조슈아 벨의 공연을 보려면 수개월에서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수천달러의 티켓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날 그의 바이올린케이스에는 37달러 17센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워싱턴포스트’지가 기획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위대한 예술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실험이었지만, 결론은, “사람들은 위대한 예술을 알아보지 못했다.”였습니다.

‘신앙의 해’교육자료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81. 하느님 백성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육체적인 출생으로 이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남”(요한 3,3-5)으로써,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세례로써 그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백성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기름부음인 성령께서 그 ‘머리’로부터 몸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이 백성은 ‘메시아적 백성’입니다.
- “이 백성은 그 신분으로 하느님 자녀의 품위와 자유를 지니며, 성령께서 마치 성전에 계시듯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신다”(교회헌장, 9항).
- “이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랑의 새 계명을 그 법으로 지니고 있다”(교회헌장, 9항). 이는 성령의 ‘새’ 법입니다.
- 이 백성의 사명은 지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이 된다”(교회헌장, 9항).
- “마지막으로, 이 백성은 하느님의 나라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 하느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세말에 또한 당신 친히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넓혀져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782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